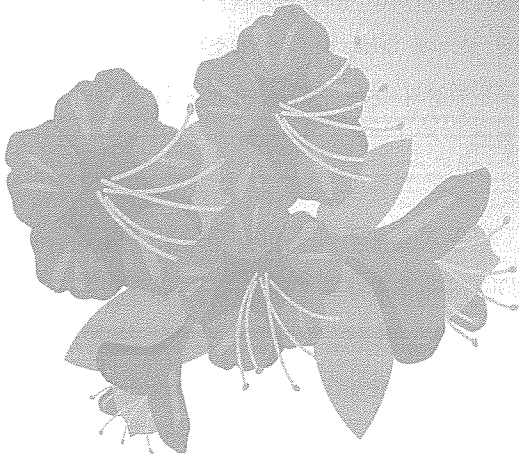


# 곧 지나가리라



윤여임 / 조란목장 운영

## 작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던 몇 가지 일들

십 수 년 전 아빠의 생일 선물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이들이 모은 삼만 원으로 지구의(地球儀)를 사면 어떨까 하고 제안한 것이다. 코 문은 돈을 절약해 주기 위해 문방구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도매금에 지구를 하나 사고 각자 편지를 써서 선물 하도록 했다.

내심 우리 부부는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작은지, 땅덩이 좁은 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인적자원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식구들은 한 동안 둥그렇게 돌아가는 지구의를 놓고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반으로 잘린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세계 속에서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애들은 실망했고 놀라워했다. 그렇게 작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힘이 그랬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그랬다.

즐기세포로 뜨거웠던 2005년

2005년 한 해는 즐기세포 관련 뉴스로 온 나라가 뜨거웠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을 내세워 혹은 투명성을 담보로 수시로 파헤쳐지고 크게 알 필요조차 없는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에 누리꾼들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언론의 지나친 호들갑에서 오는 부작용이 주는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가 않다.

과학이란 것이 가설에서 출발해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새로운 학설이 출발하고 다시 다른 이론이 생겨나 그 학설을 뒤집으며 진보하여 오늘날까지 왔음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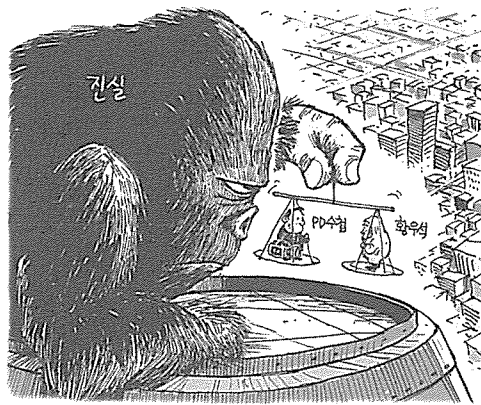
그러나 매체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검증 안 된 이야기를 쏟아놓아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국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과학자를 대중인기스타처럼 만들어 순수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흔들어 놓는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또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고 이런 측면들은 소신 있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가 초고속으로 변모해 가면서 사람들의 조급증은 도를 더해 가지만 그러나 그런 반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갖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 신문 1면의 사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이었다. 비단 나뭇이 아니라 황우석 교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의 그런 모습을 볼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팁수룩한 수염에 약간 영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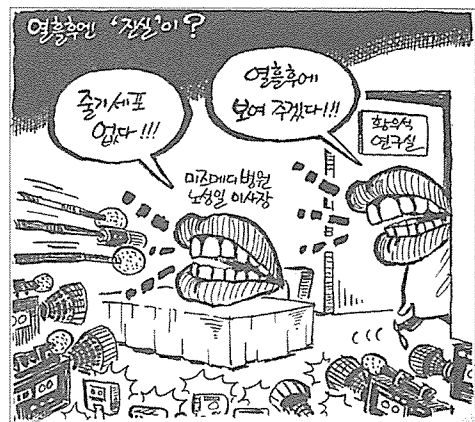
즐기세포를 소재로 한 만평들



▲ 한겨레신문 12월 3일



▲ 서울신문 12월 12일



▲ 조선일보 12월 17일



모습의 환자복을 입은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 만나면 기분 좋아지던 황우석 박사

우리 목장에 제자들과 진료를 나왔던 어느 날, 그분은 햇살을 등지고 서서 진료를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얼굴에 옅은 점이 있어 수술을 받았는데 햇볕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의 순진무구하고 깔끔한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다정다감하고 언제나 단정한 모습의 황 박사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다.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증상에 대해 성의를 다해 설명을 하고 물 한 잔을 대접해도 진정 고마움을 표시하고 진료가 끝나면 우리에게 밥을 사주곤 했다.

음식점에서 미처 손 못 대고 남은 음식을 연구실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줄 것이라며 싸달라고 하는 그는, 제자 하나하나는 물론 마주한 모든 사람에게 고루 관심을 표시하는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받은 인상이었다.

우리 목장의 문제점을 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리 바빠도 약속을 정해 다녀가곤 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보기 힘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과학적인 업적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한 편으로 섭섭했던 것이 사실이다.

충남 부여의 한 작은 고을에서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 어머니의 소원이 면서기가 되는 것이었다는 한 소년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까지 그의 노력과 열정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엄청났으리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경기 바이오 센터 준공식에 참여해서 보여줬던

그의 따뜻함과 장애우들이 즐기세포 정상에 마련된 기념관에 휠체어를 두고 걸어내려 올 것이라고 말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던 장애우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내고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가 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과학은 가치중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그의 인사말로 과학자가 자신의 소신대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아쉽기만 하다.

지난 8일에 열린 ‘황우석 바이오 장기센터’ 기공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황박사가 병원에 입원중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지만 우리들의 지나친 관심도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의 회원들처럼 진달래꽃 즈려 밟고 연구실로 돌아오라고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는 것은 그 방식대로, 혹은 나처럼 오로지 순수하게 능력을 다해 때론 그 능력을 초월하는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굳게 믿어주고 묵묵하게 성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큰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무조건 믿어주던 말없는 사람들의 힘은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상심을 가지고 오로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몫인지도 모른다.

과학에 감성은 불필요한 존재다. 우리 모두 너무 성급함으로 시대의 영웅을 만들어 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순식간에 그 믿음을 거둬들이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 쉽게 판단하고 흑백논리에 의해 한마디씩 거드는 것이 결국은 건잡을 수 없는 혼

란으로 몰고 간다.

### 모든 일, 세월과 함께 결론 내기 마련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상치 못했던 복병과 마주쳐 많은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발생되기 보다는 인간의 복잡 미묘한 심사가 만들어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람 사는 모습을 자꾸 뒤돌아보게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부분은 세월과 함께 결론이 나게 마련이고 그것은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아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된다.

나는 아주 어려운 일에 직면하거나 아주 가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 때 인구에 회자하는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 “곧 지나가리라”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인 다윗이 세계를 향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였다. 전쟁에서는 자고로 승리와 패배가 있게 마련이다.

다윗도 그랬다. 어떤 전쟁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어떤 전쟁에서는 수세에 몰리며 패배하기도 했다.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차

곡차곡 얻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겨질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낸다.

그리고 다윗은 금(金)세공 장이를 궁으로 불러, “나는 마침내 이스라엘과 온 유대에 남겨질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자만하고 있을 수 없느니라.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너에게 명령하노라. 내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할 말을 금반지에 새겨오라.” 금세공 장이는 금반지를 받아가지고 궁전을 나섰지만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었다.

주변 사람에게 아무리 물어보아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왕의 명령이니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때, 금세공장이는 이 일을 해결할 한 사람을 떠올린다. 바로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왕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자 솔로몬이었다.

그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왕이 명령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했다. 젊은 왕자는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금세공장이에게 답을 가르쳐주었다.

### “곧 지나가리라.” ㉔